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불교계는 달라져야

한국불교는 달라져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담겨있을 뿐 살아 움직이는 일상생활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열려 있으나 사찰은 닫혀있다. 법당 문은 열려 있으나 승려의 의식구조는 막혀 있다.

불교TV의 화면에는 온통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영험 설화가 법복을 걸친 스님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사찰을 알리는 홍보 선전물이 마치 구걸하듯 신도들에게 권선문으로 다가온다. 조계종출판사에서 매년 발행되는 사찰 달력 뒷장에 원진살, 상충살, 들삼재, 날삼재가 빼곡하게 박혀있음에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보는듯해 안타까움이 그지없다. 사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영가천도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사찰이 부지기수요, 대학입시 합격기도 동참금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국불교는 좌불 신앙이 뿌리가 깊어서인지 변화를 두려워하며 받는 불교에 익숙해져 있다. 육바라밀의 으뜸 덕목인 보시(布施)에 있어서도 승려는 베푸는 일에 매우 인색하다.

한국불교는 변화를 두려워한다
닫힘 아닌 열린 불교를 지향해야

초청법회에 초대되는 스님일 경우 연륜과 수행력도 화려할 터인데 법회가 끝난 후 주최 측에서 내미는 돈이 든 봉투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모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스님이 재보시(財布施)는 못하더라도 법보시(法布施)는 당연한 몫이고 의무일 터인데 한 시간 남짓 법문하고 50만 원, 100만 원을 챙겨간다니 법보시를 실현할 날이 언제일지 묻고 싶다. 제발이지 먹여 살릴 부양가족이 없는 스님들이 가난하게, 검소하게, 깨끗하게, 당당하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정진하는 기본자세를 잃지 않으며 상식이 통할 수 있게 개운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이다.

조계종단에는 100여 곳이 넘는 대중선원이 있다. 여름 · 겨울의 안거 기간에 2~300여 명의 수행승들이 모여 정진하는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본다. 다만 수행하는 방법과 간화선(看話禪)을 참구하는 간절심에 대해 뼈아픈 성찰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짜인 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에 길들여지는 도식화된 화두(話頭)로는 간절심이 이어질 수 없을 뿐더러 선, 후배가 한 방에서 정진하는 편안한 풍토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일생동안 선원에서 수행의 외길을 걸어오신 어느 원로 스님께서 오매일여(寤寐一如)를 간화선(看話禪)의 마지막으로 거쳐야할 단계로 설명하고 있음은 지극히 왜곡된 안타까운 일이다. 〈육조단경〉의 주인공인 행자 혜능은 참선에 대한 기초와 습의 과정도 없이 돈오돈수(頓悟頓修)의 절차 없는 참모습을 보여주질 않던가. 〈종경록(宗鏡錄)〉에서 연수선사가 밝히고 있듯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빠르고 더딜 수 있음을 인정해야 옳은 것이다.

한국의 선불교에는 스승다운 스승이 방장이나 조실을 맡아 후학을 지도하는 게 아니라 문중의 서열 위주로 자리에 오름은 개탄하고 개탄할 일이다. 조실, 방장이 법력(法力)의 개안종사(開眼宗師)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문중의 서열 다툼으로 자리차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활발발(活潑潑)한 법거량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이다. 20년, 30년 선원에서 안거(安居)한 수행경력이 화려한 자랑거리로 등장하는 현실은 부끄럽고 마음 짠한 달라져야 할 일이다.

한국불교에서 가장 달라져야 하는 것은 출가집단인 스님 쪽이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승려생활이 직업화되어 가는 느낌도 날이 갈수록 그 둘레를 넓혀가고 있다. 신도들의 주머니는 비어 있으나 주지스님의 주머니는 채워져 있다면 이것은 넌센스의 희극이요, 이솝우화이다. 신앙과 종교의식이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에서도 환갑잔치, 칠순잔치가 사라진지 오래인데 출가 수행승이 버젓이 해마다 생일상을 받고 있다면, 환갑 · 칠순 · 팔순잔치를 벌인다면 이 어찌 수행승의 아름다운 회향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일부이긴 하나 고승(高僧) 생가(生家) 복원도 깊이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인도와 중국, 한국불교에서 일찍이 없었던 일이 조계종단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인물의 평가는 사후(死後) 최소한 10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할 터이고 덕 높으신 스님일수록 생가 복원 따위로 덧칠할 필요도 더욱 없을 터이다. 꽃상여에 만장이 번거롭게 따르는 장례문화, 이 절(寺) 저 절(寺)로 옮겨 다니는 49재 풍습도 사라져야할 악습임을 밝혀둔다.

一行三昧… 육신의 무상함 이기는 해법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중국 선종의 4조가 된 도신 대사(道信:580~651)는 어려서부터 불교의 해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출가하여 사미가 된 후 14살 때 환공산(ø0公山)에 머물던 승찬 대사를 찾아가 절을 하고 물었다.

"원하옵건대 스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해탈법문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승찬 대사가 되물었다.

"누가 너를 속박하였는가?"

"아무도 속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해탈을 구하는가?"

이 말 끝에 도신 대사는 크게 깨닫고 9년 동안 승찬 대사를 시봉했다. 훗날 이 문답이 '도신해탈'이라는 공안 중 하나로 채택되기도 했다.

중국 선종사에서 많은 대중이 모여 회상(會上)을 차리게 된 것은 4조 도신 대사 때부터다. 만년에 그가 파두산(破頭山, 쌍봉산)에 30여 년간 주석할 때 문하의 제자들이 500여 명이 됐다. 홍인(弘忍)대사에게 법을 전해 조사위를 잇게 하고 그의 문하에서 우두종(牛頭宗)을 세운 우두법융(牛頭法融:594~657) 스님이 배출됐다. 법융 스님은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을 주장하여 독특한 선법을 선양하였다.

〈능가사자기〉 '도신장'에는 자신의 법에 대해 언급해 놓은 말이 있다.

"내 법의 요점은 〈능가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는 말과 〈문수설반야경〉의 '일행삼매(一行三昧)'에 근거를 둔다."

그의 선법 특징을 나타내는 말에는 수일불이(守一不移)와 섭심(攝心), 간심(看心), 일행삼매(一行三昧) 등이 있다. 하나를 지키면서 옮기지 않는다는 '수일불이'는 사대(四大)와 오온(五蘊)의 화합인 신체가 무상함을 깨닫고 공(空)을 관하는 한 가지 법을 시종일관 수행한다는 말이다. 일행삼매란 좌선 만이 선의 능사가 아니라 모든 활동영역에서 선이 실천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일행삼매에 드는 자는 무수한 제불법계가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다리를 들고 내리는 것까지 도량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모든 행위와 거동이 모두 깨달음이다."(入一行三昧者 盡知恒沙諸佛法界 無差別相 夫身心方寸 擧足下足 常在道場 施爲擧動 皆是菩提)

이는 〈유마경〉에 설해져 있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다리를 들고 내리는 것까지 도량으로부터 와사 불법에 머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諸有所作 擧足下足 當知皆從道場來 住於佛法矣)

〈경덕전등록〉 3권 '도신전'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 당 태종이 도신 대사가 터득한 불도의 깊은 이치를 흠모하여 서울로 오게 하였으나 대사는 황제에게 글을 올려 겸손하게 사양하였다. 황제가 이러기를 세 번 거듭하였지만 도신 대사는 끝내 질병을 이유로 사양하였다. 네 번째는 황제가 노하여 '이번에도 일어나 왕명을 따르지 않으면 머리를 베어 오라'고 명령하였다. 사신이 절에 도착, 황제의 말을 전해주자 도신 대사는 목을 길게 뽑아내 칼에 갖다 대면서 베어가라는 시늉을 하였다. 얼굴빛이 태연하고 하나도 변함이 없었다. 사신이 남다른 인물이라 여기고 그냥 돌아가서 황제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자 황제는 스님을 더욱 찬탄하고 존경을 하면서 보배와 비단을 하사했다고 한다.

제자인 홍인 대사가 황매현(黃梅縣) 동산(東山)에서 선법을 전하였으므로 세상에서 도신 대사와 홍인 대사의 법을 병칭해 동산법문(東山法門) 또는 동산정문(東山淨門)이라 하였다.

〈선문염송설화〉 108칙에 운거요원(雲居了元) 읊은 송이 있다.

"속박됨이 없이 명백하게 해탈한 몸이여! 서산 언덕 깊은 곳에 한 송이 꽃이 피어 봄소식을 전하네. 설령 문황(文皇)의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기주(冀州)의 광제(廣濟) 사람이었을 것이네."

꽃 한 송이가 무한한 봄소식을 전하고, 한 방울의 물에도 거대한 바다의 짠맛이 느껴진다는 뜻으로 속박이 없는 해탈 이외에 더 이상 어떤 존재가 있겠느냐는 말이라고 설화에서는 보충 설명을 하였다.

대사는 72세의 일기로 좌선한 채 입적하였다. 100여년이 지난 대종(代宗) 때에 와서 대의선사(大醫禪師)라는 시호와 자운(慈雲)이라는 탑명이 내려졌다.

팔만사천 근기따라 수행도 세분화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④ 달마와 〈금강경〉

눈이 모양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냄새를 맡을 때, 혀가 맛을 볼 때, 몸이 촉감을 느낄 때, 무엇을 생각할 때는 욕계와 색계입니다. 있음과 없음, 좋아하고 싫어하는 등의 일체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욕계, 색계를 벗어나 무색계의 보살지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이런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49년간 팔만사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에게 팔만사천 분별망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팔만사천 분별망념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신 것이 팔만사천 법문입니다.

팔만사천 법문을 또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비유한 것은 팔만사천 분별망념을 제거하기 위한 도구와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손가락은 도구와 표식으로, 표식에 의지하여 물건을 찾고 손가락을 의지하여 달을 보게 되지만, 달은 손가락이 아니고 표식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팔만사천 분별망념도 이름이고 팔만사천 법문도 이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며, 티끌이 아니고 이름이 티끌이며, 이름이 부처이고, 이름이 여래(如來)이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강경〉은 부처님이 삼계 가운데 무색계의 중생들을 위해 설하신 것입니다. 〈금강경〉은 보살 10지, 4선, 4정, 5온의 뜻을 담은 경전입니다.

보살지(菩薩地)는 색, 수, 상, 행, 식이 온전히 공함을 깨달을 때 증득하는 과위로서 성인의 경계입니다. 보살지인 성인의 경지는 우리들의 언어와 문자, 생각으로 접근 될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자,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런 수행 과정이 현재 지구상 우리들의 근기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마 대사는 이러한 내용을 중국에 전했습니다. 인도 27대 반야다라 존자는 남천축국(南天竺國)의 달마 대사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반야다라 존자가 달마 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너른 땅에
길 하나 제대로 없어
질손(姪孫)의 발뒤꿈치만
바짝 좇아야 하겠구나.
금계(金鷄)는 용하기도 하지
쌀 한 톨 입에 물어
시방(十方)의 나한승(羅漢僧)을
공양(供養)하는구나.

중국 땅이 비록 넓으나 불법이 널리 펼쳐지지 못하여, 불법을 널리 펼치는 선사의 뒤를 따를 뿐이란 것입니다. 쌀 한 톨을 시방의 나한승에게 공양한다 함은, 한 마음의 일체중생들을 깨우침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달마 대사는 반야다라 존자 열반 후 남천축국에서의 교화를 마치고, 뱃길로 중국 남해에 이르러 양나라 금릉에 도착했습니다. 달마 대사가 양무제를 만났으나 달마 대사는 무제의 근기가 불법에 맞지 않음을 알고 양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때 양나라 지공(志公) 조사가 양무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서역 남천축국에서 '보리달마'라는 승이 왔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양무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강을 건너 위나라로 갔소."

지공 조사가 말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보아도 보지 못했고, 만나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무제가 묻기를 "서역 남천축국의 보리달마가 누구였던가요?" 지공 조사가 답하기를, "그는 부처님의 심인(心印)을 전해 받은 관세음보살의 후신입니다."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苦가 아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